

## 혜암의 선사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황금연\*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수행환경 해인총림
  - 1. 해인총림의 수행
  - 2. 두타와 정진
- III. 선사상
  - 1. 참선, 고독 치열한 전쟁
  - 2. 화두, 참선의 무기
  - 3. 돈오돈수
- IV. 나오는 말

---

\*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大覺思想』 제34집 (2020년 12월), pp.219-259.

## 한글요약

이 논문은 혜암성관(慧菴性觀, 1920~2001)선사의 수행과 사상을 그의 불교관을 비롯하여 참선관·화두관·견성관의 순서로 엮어 살펴본 글이다. 기록을 통해보면, 선사는 첫째,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 자기 관리에 무엇보다 철저했던 인물이다. 둘째, 출가 이후 그의 삶 전체는 붓다의 제자로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수행자의 삶을 일관한 귀감이었다. 셋째, 그의 수행 전체는 오로지 화두참구를 통한 생사해탈에 금생 전체를 걸었던 간화선의 종장이었다. 선사의 수행 전반(全般)을 이루고 있는 기본기조는 참선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 한 끼의 공양과 장좌불와, 육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일(운력)의 세 가지다.

불구덩이같이 좋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할 일은 붓다와 같이 자기 마음을 깨쳐 고해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기 마음을 깨치는 수행은 오직 참선이고, 그 가운데도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이란 것이 그의 불교와 수행을 보는 핵심이다. 그에게 있어서 불교는 인간에게 있어 최상의 혁명이며, 참선은 인간의 본래면목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깨달음의 길이다. 본래면목으로 돌아가기 위해 번뇌와 망상을 다 버리고 대무심(大無心)의 경지를 얻어야 하며, 이는 화두참구를 통해 돈오돈수 함으로써 구경각(究竟覺)에 이르는 것이다. 불교의 성불하는 방법 중 관법과 주력, 독경·묵조선 등 그 어떤 것도 화두참구를 통한 간화선에 미치지 못하며,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을 포함한 인간 모두가 참선을 하여 자신의 주인공을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에게 있어 참선은 자성에 합하여 청정심을 보양하고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는 자성공양이며, 자기와의 고독한 행군이고 치열한 전쟁이다. 또 믿음에서 바로 들어가 빠기를 하는 작업, 즉 걸가지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 전쟁을 위한 무기가 바로 화두다. 또 1700공안이라고 하는 『전등록』의 많은 화두는 그 가치가 동등하다. 따라서 수행자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만 가지고 깨달으면 견성성불하고, 그것은 숙면일여가 되기 전에는 풀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서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화두의 생명은 설명하지 않는 데 있으며 설명될 수도 없고, 설명하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다 죽어버린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또 화두참구가 잘되지 않을 때는 “조작으로라도 ‘이뻗고’를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뻗고’가 참 의심무치 하나로 되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터진 것을 견성이라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참선은 간화선이며, 묵조선은 사구(死句)에 해당하고, 엄불이나 묵조선·수식관 등은 비교적 하기는 쉽지만, 정력(定力)이 쌓이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정통 선택은 다른 법을 하더라도 설하지 않고 오직 이 돈오돈수법, 그냥 확절대오(廓徹大悟)하는 법을 설하는 것

이며, 다른 것은 모두 외도법이라 하였다.

정리하면, 불교는 인간에게 최상의 혁명이며, 참선을 제외하고 불교는 없다. 생사 해탈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경각을 성취해야 하며, 구경각인 대무심의 경지를 성취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참선이고, 참선 중 최고의 수행법은 간화선의 화두참구이다. 즉, 화두참구를 통한 돈오가 중요이며 해탈이고 구경각이라는 철저한 확신 아래 구경각을 성취하기 위한 최상의 수행법칙으로 하루 한 끼의 공양과 장좌불와, 거기에 육신의 원활한 운용과 동정일여(動靜一如)의 수행을 위한 윤력의 세 가지를 수행 내내 실천해온 한국불교,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의 전통적이고 모범적 수행자이며, 간화선의 참구에 있어서도 전통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간화선의 종장이라 할 것이다.

### 주제어

화두, 돈오돈수, 대무심(大無心), 구경각(究竟覺), 동정일여(動靜一如), 일종식(一種食), 장좌불와.

##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시대 선지식들의 행적과 수행 및 그 사상을 조명하고 스승으로서의 행적을 기리고자 하는 학회가 해당 문도들과 뜻을 함께하는 재가제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자기 스승 큰스님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시대 각각의 선지식들이 평소에 수행해온 이력과 그분들이 가졌던 사상을 조명분석하고 정리해 그분들의 좋은 부분을 기리는 것에서 나아가 후학들을 위한 수행모범을 남기고, 후대를 위한 수행지침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문명의 이기(利器)를 통한 정확한 기록과 생생한 삶의 모습까지도 소리와 영상으로 보존 가능한 시대라는 것임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당연한 추세라 할 것이다. 만약 부처님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이기가 발달 구비되어 있었다면, 오늘날의 불교와 불교학은 지금과는 훨씬 다른 양상을 띠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수행자,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야에서건 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던 선배들의 행장을 정리하고 기리며, 그 사상을 정립, 조명하는 작업은 그분의 편에서나 후대의 수행 귀감을 마련한다는 두 측면 어느 쪽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각각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어차피 후대들의 몫이므로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선지식과 함께 시공을 공유했거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나 문도들이 다수 현존해있는 시점에 각자의 기억을 더듬어 서로 공유하고 그 가르침을 나누는 일은 마치 칠엽굴의 결집을 연상케 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불가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혜암성관(慧菴性觀, 1920~2001)대종사<sup>1)</sup>는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했던 수선남자와 제자들의 회고담을 종합해 볼 때, 수행과 교화의 양 측면, 그 가운데서도 수행 내부적으로도 이판(理判)과 사판(事判) 모두에 고른 안목과 행회를 펼친 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수행슬로건이자, 평생을 통해 후학을 일깨우는 지도방침이기도 했던 ‘공부하다 죽어라’의 기치 아래, 그를 기

1) 속명은 김남영이며, 혜암은 법호이고 성관은 법명이다. 이하에서는 혜암성관으로 통일한다.

리는 말들은 인연된 사람들의 숫자만큼 많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상대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보이는 모습과 느낌 또한 각기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혜암을 일컬어 ‘이사무애(理事無礙)하신 분’, ‘45년 후 50년 동안 오전 한 끼의 공양을 고수한 일종식(一種食)의 수행자’, ‘출가수행 내내 장좌불와를 지속하신 분’, ‘일생 청정한 두타행으로 일관한 대쪽 같은 수행자’, ‘일생 선수행자였으나 산문 내 은둔만을 고수하지 않고 1994년 개혁불사와 1998년 종단사태를 앞장서 해결한 사관의 능력자로서 적극적이고 개혁적 성향을 지녔던 수행자, 또 선 수행에 전념하셨음에도 종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엔 과감히 개혁의 깃발을 손수 들고 앞으로 나아가 단호한 결정력과 실천력으로 종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도 한 불퇴전의 수행력과 배사자립(背師自立)의 정신을 지녔던 분<sup>2)</sup> 등 그분을 일컫는 수식어<sup>3)</sup>는 무수히 많다. 혜암을 묘사하는 여러 증언들을 보다 보면, 이분에게 부족한 인성(人性)은 무엇일까를 찾아보게 될 정도다.

하지만 혜암을 전하는 그 많은 표현들을 논자가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 자기 관리에

2)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엮음, 여연, 『가야산의 대쪽, 혜암성관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pp.37-38.

3) 지면에 나타난 혜암성관을 일컫는 말들은 다음과 같다. “인천의 사표, 가야산 대쪽, 본분종사, 한국불교의 선지식, 수행자의 길잡이, 신심의 화신, 모든 일에 걸림 없던 지혜인, 공부에 모든 것을 바친 진짜어른, 강철 같은 수행자, 수행의 나침반, 수좌정신, 종단을 구한 호법신장, 우리시대 선지식, 위법망구를 보여준 어른, 인생의 수호자, 돈오돈수의 정법을 실천하신 어른, 수좌의 왕, 진정한 부처님 제자, 위대한 수행자, 거울 같은 어른, 정법수호를 위해 평생을 진력하신 분. 정진을 제일의 살림살이로 여기신 분, 천진불, 말씀은 도에서 벗어남이 없었고 행동은 율의에 어긋남이 없는 분, 그러면서 동시에 자비로움까지 갖춘 보살. 대중을 위해 보시와 탁발,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고 사부대중을 외호한 올곧은 수행자. 견처見處가 분명하며 평생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한길로 마음공부에 전념했던 선지식. 소신이 뚜렷하고 강직하며 결단력 있는 분. 후학들에게는 호랑이 같이 엄하고 철저했던 분, 신도들에게는 너무나 자비로운 보살. 종단사宗團史에 길이 남을 지도자. 군더더기 없이 날카로우면서도 한없이 자비로운, 언행일치가 그 속에 담긴 직접적 행으로 보여주면서 정진한 분, 오직 참선으로 평생을 삶. 정진 아니면 일, 일 아니면 정진으로 일관하며 두타제일 가섭존자를 떠올리게 하는 삶. 자리로서의 회유에 굴하지 않는 수좌로서의 강단과 기개. 맑고 준엄하며 때로는 깊이 있는 단조로움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좌의 모습 등 이루 다 언급하기 어려우리만치 많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p.10, p.43, p.44, p.46 등등.

그 누구보다 철저했던 인물이다. 둘째, 출가 이후 그의 삶 전체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수행자의 삶으로 일관한 귀감이었다. 셋째, 그의 수행 전체는 오로지 간화선을 통한 생사해탈에 금생 전체를 건 선승이었다. 선사는 한국 선수행의 역사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간화선을 현창한 ‘간화선의 대 종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 개인적 성품과 수행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수행에는 벽지불처럼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타인에게는 보살처럼 따뜻하고 관대했던 선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선사의 활동이력을 통해 정리해보면, 중국의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0)와 고봉원묘(高峯原妙, 1238~1295) 두 선사를 함께 떠올리게 된다. 대외적 적극성과 단호함에서는 대혜종고와 닮아있고, 내적 자수행(自修行)의 철저함과 대중을 위한 배려 및 자비에 있어서는 고봉원묘와 닮아있다. 그의 행장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그간의 여러 논문을 통해 많이 언급<sup>4)</sup>된 부분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혜암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논구해 봐야 할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그가 해인총림이란 수행공간에서 당대의 많은 수행도반들과 함께하면서 공유한 사상은 무엇인가? 또 그만의 차별된 사상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2. 그의 수행전체를 관통한 사상적 중심은 무엇인가? 3. 출가대중을 향한 수행지침과 재가대중을 향한 수행지침은 동일한가, 다른가?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논구하는 관점에서 그가 일생을 수행하고 현창했던 간화선과 관련하여 어떤 참선관과 화두관, 견성관을 지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주된 탐구의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출가자로서의 삶과 수행기간 내 내 많은 사상과 수행을 교류했던 퇴옹성철(退翁性徹, 1912~1993)과는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하는 것은 아마도 그를 탐구하는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구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는 그의 수행과 사상적 특징을 정립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그의 대외적 활동과 관련한 것은 모두 배제한다. 그가 고수하고 끊임없이 설교한 사상적 측면을 간화선의 본령에 입각하여 면밀히 논구해갈 것이다.

4) 여연, 「가야산의 대쪽, 혜암성관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조기룡, 혜암선사의 수행 리더십 형성과 하화중생」; 혜암성관선사의 자성삼학의 선수행관 고찰」 등등.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엮음,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선승의 행장을 기리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어떤 구도와 제도의 살림살이를 꾸려왔는가를 살피는 일일 것이다. 사상과 설법, 수행방법 등에서는 우선 전통을 충실히 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당사자만의 독특한 무엇을 빚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두드러지게 획기적으로 새로운 걸 내세웠다면 그게 오히려 수상한 일일 터입니다. 선 전통을 제 몸에 담아 깨달음의 삶을 살아내는 행리 자체만으로 이미 당사자만의 혜명이 독자적이고 새롭게 실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up>5)</sup>라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선승, 종사의 수행과 사상, 설법과 교화의 양태를 조명하는 작업을 끝없이 이어가는 것은 그의 사상과 수행이 지닌 전통성을 구명함과 동시에 독자적 특성을 함께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한 선승의 종통(宗通)과 설통(說通)을 함께 추적해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즉, 한 측면으로는 그가 외도의 깨달음이 아닌 전통적 선승임을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이 지닌 수행방법상의 차별성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도 이런 관점에서 ‘공통성과 전통성’, ‘독자성과 특수성’의 두 관점에서 천착해갈 것이다.

## II. 수행환경 해인총립

### 1. 해인총립의 수행

주지하다시피, 한국불교,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의 수행양상을 살펴보면, 갖가지의 수행종목을 모두 포용하여, 가르치는 이의 수행성향과 가르침을 받는 이의 근기에 따라 모든 수행을 총체적으로 고루 권장하고 있다. 근기가 낮다고 생각되면 염불과 절 수행을, 근기가 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경전열람을 권장하고, 이 모두를 뛰어넘는 특별히 남다른 근기를 지녔다고 생각되면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선방으로 가서 선 수행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때때로 수행에 마장(魔障)이 생길 때에 병행하는 것이 염

5) 윤원철, 『혜암선사의 간화선에 대한 고찰을 읽고』,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p.215.

불과 주력, 절 수행 등이다. 선방에서 한철을 수행하고 해제기간에 만행과 함께 기도를 많이 하는 경향도 이에 속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전제의 말로는 “판만 사천법문이 문마다 다 들어갈 수 있다.”<sup>6)</sup>는 것과 “상사는 좌선하고 중사는 경전을 외며, 하사는 탐사경영을 감당할 수 있다.”<sup>7)</sup>는 ‘주경사대중흥사(周京師大中興寺) 도안법사유계(道安法師遺誡)’ 제8의 구절이 승가내부의 강독서책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수행역사에서 근기가 뛰어난 수행자가 도전하는 궁극적 수행의 중심에 ‘간화선’이라는 면면히 이어져 오는 선법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외양적으로는 수행을 현창하고 지도 및 점검하는 종장과 수행에 매진하는 대중의 감소로 간화선이 그 활기를 잃고 다소 침체되어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심지어 간화선의 본령 자체에 대한 회의를 지닌 사람들조차 대두 되는 형편이다. 하지만 해인사 원당암 사례를 들어보면, 재가불자의 간화선수행이 오히려 확산된 느낌도 없지 않다.<sup>8)</sup>

여기서 잠깐 우리 선문(禪門)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 초기 중국으로부터 오가(五家)의 선종가풍이 다 전래된다. 이 과정에서 공민왕 때의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가 임제의 18대 석옥청공(石玉淸琇, 1272~1352)으로부터 법을 이은 뒤, 고려로 돌아온 것은 한국의 선사상을 변화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선종의 특색을 분석하는 경향에 따르면, 신라시대의 선은 단지 중국선의 수용에 지나지 않았으며, 고려에 들어와서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에 의하여 중국선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 선풍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눌이 확립한 선풍은 조선조 선의 방향을 결정하고, 후대 조계종 성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초기 구산선문의 선승 대부분은 교와 선의 융합적인 사상적 특성을 띠고 있었고, 이런 경향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불교조계종의 특징인 통합적 수행양상으로 내려오고 있다.<sup>9)</sup> 조선조 선의 중심에 있었던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도 그의 저서 『선가

6) 『高峰原妙禪師禪要』, X70, p.702a, “八萬四千法門 門門可入”

7) 『緇門警訓』 권2, 「周京師大中興寺道安法師遺誡九章以訓門人其詞」, T48, p.1051b, “學無多少要在修精 上士坐禪中士誦經 下士堪能塔寺經營”

8) 원당암의 달마선원에서는 재가대중의 용맹정진 참여가 이삼백 명에 이르기기도 한다고 하니, 재가대중의 간화선 참구의 부흥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9) 황금연, 「조선시대승가의 수행경향에 관한 연구」, 『종학연구』 제1집,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 2019, pp.61-62.

귀감(禪家龜鑑)』을 통해 간화선을 가장 주된 수행으로 표방하면서도 화엄교학을 비롯한 많은 경전을 수용하고, 그 가운데 염불과 지주·사경·예배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이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조선조의 선사상은 태고 이전의 구산선문에 보조지눌의 선사상을 더하고, 또 이에 더하여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의 선사상이 합해져 계승 발전되어온 것이라 할 것이다. 조선 시대 청허휴정의 『선가귀감』을 통해 선교일치의 사상으로 이어진 이러한 흐름은 청허의 뒤를 이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현대 해인총림의 수행을 살펴보면, 혜암의 세수 28세인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슬로건 아래 결사를 단행했던 성철과 우봉·자운·보문·도우·법전·일도 등 20여 남자 가운데 성철·자운·혜암·법전 등과 같이 각기 한 분야의 수행을 대표하는 산중어른들이 총림을 이끌어 갔으므로 총림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행환경이었다. 일타·성철·혜암·법전 등 큰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때가 해인사의 전성기<sup>10)</sup>라고 회고하고 있듯이, 총림이 빛을 발할 때는 구성어른들이 굳건한 수행기조 아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산문이 굳건해지는 것이다. 선원과 율원 및 강원과 염불원의 구비를 총림의 요건으로 들듯이, 해인총림은 그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각 분야에 중심을 이루는 어른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이다. 총림의 사상적 기조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퇴옹성철과 함께 혜암성관이 주장하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견성을 표방하는 중심수행인 간화선과 함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백팔 대 예참과 삼천배 등의 절 수행, 수행 도중 마장(魔障)을 조복받기 위해 독송하는 능엄신주의 독송 및 자비도량참법과 아비라 기도 등이 수행의 중심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수행종목 가운데 출가자의 궁극적 수행종착역은 선문의 간화선 수행으로 귀결되는 환경 속에 여러 대중들이 신심을 고취시키고 서로 탁마하며 각자의 소양이 뛰어난 분야로 매진하며 총림을 형성해 간 것이다. 이는 비단 해인산중 뿐 아니라 해인총림과 인연한 여타 수행도량도 같은 기조 아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기조 아래 산중의 어른들은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며 산문을 이끌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혜암의 다음과 같은 회고를 통해보면 충분히 짐작된다.

10) 해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 혜암』, 김영사, p.182.

사실 방장스님(성철종사)을 보필하다보니, 뜻에 없는 중노릇을 세 가지 하게 되었지. 토굴 같은 데 숨어서 평생 정진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지. 상좌를 안 들이려고 했는데, 큰 절에 살다보니 안 받을 수 없었고, 절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방장스님과 사중에서 원당암을 맡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맡게 되었지.<sup>11)</sup>

혜암은 위의 예를 들며 하나가 잘못되니 자꾸 가지가 생겨나 자신의 뜻과는 달리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산중의 대중처소에서 일어나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성철이 혜암을 아끼고 또 혜암이 성철을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이므로 서로 존중하는 사이<sup>12)</sup>이기에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종사 혜암이 수행하던 시절환경에서 간화선은 출가수행자의 생사해탈과 성불을 향한 최고의 수행종목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신의 부족한 근기를 타할지언정 수행법 자체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는 없었던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수행이긴 하지만, 간화선은 견성성불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의 가장 빠른 성취의 길인 경절문(徑截門)으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행법이었던 것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출가 수행한 혜암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수행에 임했을까?

## 2. 두타와 정진

제자백가와 불교경전을 열람하던 중 명말 연지대사 운서주굉(雲棲株宏, 1535~1615)의 『선관책진』을 보고 발심해 출가하였다고 하는 혜암의 불교와 수행에 대한 관점은 매우 간명하다. 그는 일생을 통해 자기의 수행은 물론이고 타인을 향한 수행권유에 있어서도 간화선의 화두참구 외에 달리 조도(助道)로써 권유한 별다른 수행법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의 평생의 지침인 ‘공부하다 죽어라’의 공부는 언제나 화두참구를 통한 간화선 공부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수행의 중심인 화두참구를 통한 간화선의 수행을 위해 자기 관리의 종목으로 채택한 조도로서의 양 날개가 하루 한 끼의 공양과 장좌불와(長坐不臥)였다. 한 끼의 공양을 선택한 것은 남에게 수행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자 하거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먹는 일에 투자하는 번거로움마저 공부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였고,

11)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07.

12)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p.156 참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화두참구에 있어 언제나 성성(惺惺)하고 적적(寂寂)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위의 두 가지의 수행은 예로부터 사람의 몸을 받아난 이번 한생에 생사대사를 해결하여 마치고자 하는 많은 수행자가 선택 해온 수행방식 중 하나이다. 때때로 보이는 소신공양이나 연비(燃臂)의 행위도 그런 투철한 발심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사가 일종식과 장좌불와를 하였다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런 지난(至難)한 수행을 성취하겠다는 결단력과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었던 인욕과 정진력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오욕 가운데 식욕과 수면욕을 수행기간 내내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신이 철두철미하게 뿌리내려 있었던 것이다. 선사는 말한다.

수행자는 운수객입니다. 동서남북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뒤로 좌로 마음대로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운수납자는 걸림이 없습니다. 하물며 화두도 망상입니다. 할 수 없어서 화두 공부하는 것이지 화두가 무슨 도입니까? 비밀법입니다. 도이면 서 도가 아닙니다. 도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수행자가 되어 머리 깎고 목욕하고 옷 벗고 입고, 해제하고 결제만 하면 누가 공부시켜준다고 했습니까? 공부하는 처소가 따로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할 줄 몰라도 딱 결정한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할 줄 모르면서 밤낮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도 내 공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수좌입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가해서 나올 때 벌써 조사입니다. 죽기로 결사해 모든 난행, 고행을 이겨내는 군인과 같습니다. 되는대로 닥치는 대로 해서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월하게 한 사람도 있고, 뼈가 저리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차별이 있기는 하나 이 공부는 내 목숨과 바꾸는 공부입니다. 죽기로 결정해 강직한 마음으로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 운수객입니다. 수좌의 생명은 도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집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배운 시비를 여기서도 합니다. 그것은 수좌가 아니고 선객이 아닙니다. 나는 시비를 꿈에라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절에서도 죽을 주든지 썩은 콩을 주든지 그런 시비는 하지 않았습니다.<sup>13)</sup>

위의 인용문은 선사가 마음 가는대로 평소의 수행관을 피력한 것이다. 이 글 하나로도 선사의 살림살이의 중심기조가 다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다. 수행자는 구름 따라 물 따라 떠도는 길손과 같아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 자

13)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p.202-203.

유로운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 첫째다. 둘째는 삶은 길지 않아 수행자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무상관이다. 셋째, 이 공부는 남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심지어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공부라는 것이 셋이다. 따라서 결정적 뜻을 세우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결정된 강직한 뜻으로 본래 마음을 찾는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운수의 길손이라는 것이 넷이다. 그래서 선사는 공부 이외에 먹는 것을 비롯한 하등의 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섯이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수좌의 생명이 오직 도에 있기 때문이다.

뒤의 화두를 논하는 단락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공부를 향한 결정된 뜻은 수행을 결정하는 출발이다. 대혜종고도 “공부에 결정적 의지(마음)가 있어야 하며 반신반의해서는 교섭할 수 없다.”<sup>14)</sup>고 하고, 또 “결정적 믿음이 없으면 바로 물러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정적 의지가 없으면 공부를 해도 끝까지 관통하지 못한다.”<sup>15)</sup>고 하였다. 이와 같은 수행의 정신을 가졌기에 평생을 하루같이 두타수행자로 정진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수행자들도 공부를 안 하면 짐승 몸에 법복을 입혀놓은 것 같다”<sup>16)</sup>고 말한 선사는 하루 한 끼로 몸을 보존하고 장좌불와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50년을 장좌불와로 하루 일종식(한 끼)만 했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애.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난 원래 날 때부터 몸이 작았어.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적게 먹어도 버티는 힘이 강했지. 그 전까지 밥 도둑놈들(몸뚱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 네 말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 여지껏 줄 것 다 주었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것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리고는 여태까지 죽 이야. 난 아주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에 타고난 체질이이지.<sup>17)</sup>

자신의 체질에 맞는 최적의 수행방식을 선택하고 지속했을 뿐이란 겸손한 얘기다. 하지만 선사의 법어 곳곳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먹는 것’을 최대한 줄

14) 『大慧普覺禪師語錄』 권19, T47, p.890a, “擔荷此段大事因緣 須是有決定志 若半信半疑 則沒交涉矣”

15) 『大慧普覺禪師語錄』 권24, T47, p.912a, “只怕無決定信決定志耳 無決定信 則有退轉心 無決定志 則學不到徹頭處”

16)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206.

17) 해암문도회 편, 『해암대종사 법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66.

여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많이 먹으면 절대로 공부가 안 된다<sup>18)</sup>는 것이 선사의 제1의 수행철칙인 것이다. 선사의 수행 전반을 이루고 있는 기본정신은 참선공부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법칙으로 하루 한 끼와 장좌불와, 육신의 운용을 위한 일(운력), 이 세 가지다. 선사의 먹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먼저 들어보자.

내가 방장이 되자마자 오후 불식을 시작했지요. 오후불식 않고 삼시로 먹고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밥 많이 먹고는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속가일도 못합니다. 밥 먹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이 그 사람의 몸을 좌우해요. …(중략)… 그러니까 밥 먹는 것 보면, 음식 먹는 것 보면 그 사람 운명을 딱 정할 수 있습니다. 관상법이 아니라도 아주 백발백중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밥 먹는 것이 공부하는 데 첫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요. …(중략)… 한 사람이 살더라도 좋으니까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선방이고 절이라 할 수 있지만 많이 살더라도 밥만 먹고 사는 데라면 절이고 선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략)… 또한 머리 깎고 범복 입었다고 해서 스님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스님 노릇하는 것이 스님인 것입니다.<sup>19)</sup>

밥 먹는 것이 공부하는 데 첫걸음이며, 그것은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밥을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다는 말이다. ‘일일일식(一日一食)’으로 수행의 척도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공부에 알맞은 자기관리란 측면에서 헤아려야 할 것이다. 불가에서 전하는 음식의 의미로 발우공양에서 지송(持誦)하는 ‘음식은 몸을 보호하는 양약이며, 형상이 마르는 것을 위로하는 것’이란 정신을 선사는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선사가 수행기간 내내 지켜온 ‘장좌불와’ 또한 같은 관점에서 헤아려야 할 것이다.<sup>20)</sup> 선사는 장좌불와를 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법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03.

19)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p.40-41.

20) “장좌불와가 귀중한 게 아닙니다. 성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장좌불와 해서 덕을 본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진실로 행해가는 데 있지 온갖 상을 내는 데 있지 않구나. 상을 내서 하는 장좌불와는 평생 해도 소용없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찬주 지음,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33.

장좌불와한 계기는 일본에서 『선관책진』을 읽다가 장좌불와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절에 들어온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3일, 5일, 7일이면 견성한다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일주일을 잡아서 견성성불 해야겠다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sup>21)</sup>

불가의 많은 서책에 도 닦는 데 장애로 으뜸은 수마<sup>22)</sup>라고 말하고 있으니,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여 금생에 반드시 견성성불 하고자 굳게 결심한 선사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력과 관련한 선사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장좌불와를 오랜 세월 동안 해오면서 참선공부를 하다 보니 일 속에서 ‘요중공부(鬧中工夫)’를 해야 병이 없고 정진이 잘 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일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은 사중에서 대중을 동원하여 ‘운력시키는 것’을 꺼리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탓도 있겠지만 소비(차담비)가 노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승가가 자주적인 자급자족의 청규법(淸規法)으로 정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대중스님들 역시 운력이 수행이라는 자각도 있어야 하겠고. 그래야만 운력이 수행이 되어 승가도 제대로 승가다워질 테고.<sup>23)</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선사의 선방에서 좌선하는 정중공부(靜中工夫)만이 아닌 시끄러운 가운데서의 동중공부(動中工夫)에 대한 견해가 피력되었다. 또한 백장 청규의 정신 아래 수행과 일이 하나로 이어지는 선가의 수행정신이 고스란히 표현된 것이다. 요중공부의 수승함에 대하여 대혜종고는 만약 요중, 즉 시끄러운 가운데서 힘을 얻지 못하면, 이는 도리어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sup>24)</sup>고 하였다. 간화선의 본령은 일상성이란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선사의 수행일상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오랜 기간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선사의 수행은 오직 참선공부를 위한 몸만들기로 하루 한 끼의 공양과, 장좌불와, 또 틈틈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운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의 일상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모든 일에 대한 자신감

21)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32.

22) 일타스님, 『자경문』, 효림출판사, 2017. p.140, “曠劫障道 睡魔莫大”

23)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04.

24) 『大慧普覺禪師語錄』 권25, T47, p.918c, “平昔留心靜勝處 正要鬧中用 若鬧中不得力 却似不曾在靜中做工夫一般”

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나는 어렵하게 하려면 고생해가며 안합니다. 나는 평생을 두고 대중살이만 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정신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렵하게 기도시키지 않고 스님 못지않게 정신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조금치라도 뒤떨어지지 않게 가르칩니다.<sup>25)</sup>

위의 인용문은 재가자에게 수행을 가르칠 때도 출가자와 똑같은 정신과 행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며, 수행에 관한 선사의 자신감을 나타낸 글이다. 무엇을 하든지 어설프게 대충하지 않는 선사의 성향과 함께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다. 기록을 통해 보면, 선사는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기관리를 하신 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어느 일면을 보아도 출가수행자로서의 모범적 행리를 벗어남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말로 선사의 수행정신의 기본골격을 엿보기로 하자.

불법의 요체는 마음도 없는 무심이고, 수행의 첫째 방법은 밥을 적게 먹는 것이고, 최상의 포교란 신도들과 함께 좌선하는 것이고, 청량법음이란 인과를 범문하는 것이다.<sup>26)</sup>

위의 인용문을 분석해보면, 선사가 늘 강조하는 불법의 요점은 마음도 없는 대무심의 경지(구경각)를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몸을 다스리는 첫째의 준비법칙으로 밥을 적게 먹는 것이며, 가장 청량한 법음은 인과가 분명함을 설하는 것이다. 또 신도들을 향한 최상의 포교는 말로써 12부 경전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좌선함으로써 공부하는 수행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송대의 선승 자각종색(慈覺宗穢)선사의 「좌선의(坐禪儀)」에도 “음식을 헤아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하며, 그 수면을 조절하여 모자라게도 지나쳐 마음대로 하지도 말아야 한다.”<sup>27)</sup>는 경책이 있으나, 아마도 선사들 가운데 밥을 적게 먹으라는 당부를 혜암 만큼 누누이 강조한 선승은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체질

25)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39.

26)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100.

27) 『緇門警訓』권1, T48, p.1047b, “量其飲食不多不少 調其睡眠不節不恣”

이 다르고 신체운동의 방법이 다르다. 그것을 혜암도 인정했다. 하지만 선사는 자기의 몸을 통한 체험에 의해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이 공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증명하여 철저히 공부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식사량을 선택한 것일 뿐,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토로하고 있다.

이제부터 혜암의 불교와 선에 대한 인식을 천착해보기로 하자.

### Ⅲ. 선사상

#### 1. 참선, 고독 치열한 전쟁

수행은 본래 사상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수행자의 사상적 기조에 따라 수행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정해진다는 의미다. 선사 혜암에게 있어서 수행의 기본적 출발은 종래의 여러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요, 불구덩이 세상이다. 그러니 좋은 일 하겠다는 생각 가져보아야 아무 소용없으니, 도를 닦아야 한다.”<sup>28)</sup>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무상관(無常觀)을 피력한 것이다. 삼계가 불타는 집<sup>29)</sup>이란 표현은 경전과 어록을 통해 히다하게 접할 수 있는 문구다. 삼법인(三法印)의 첫 조항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인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불교의 기본적이고 총체적 인식이며, 예부터 불도를 수행하는 구도자의 공통적 통찰이다. 인생무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서지 않고는 도를 추구하는 치열한 분발심을 일으키기도, 지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사 혜암이 인식하는 도란 무심의 경지를 체득하여 견성성불 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 하루 한 끼의 공양으로 몸을 다스리고, 장좌불와로 수마로부터의 자유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도를 깨닫는 수행법으로 선사가 선택한 것은 오직 화두참구를 통한 간화선의 행법이다. 여기서 먼저 선사의 무상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선사의 참선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누구나 그러하듯, 선에 관한 정의를 언제나 똑같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을 하게 되는 정황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때론 매우 간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더

28) 해인사 원당암, CD (4)

29) 『大般涅槃經』 권13, T12, p.445b, “樂在三界無常熾然大火之中 而不能出”

장황하기도 하다. 선사는 말한다.

사해의 부귀는 풀잎 끝에 이슬방울이요. 만승萬乘의 천자는 진흙 위의 똥 덩어리라는 이런 생각,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야 꿈결 같은 세상의 영화를 벗어나 영원불멸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중략) …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대는 도저히 성취하지 못합니다. … (중략) … 사람 몸을 얻기란 사막에서 풀잎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사람 몸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워낙 죄업이 지중해서 불법을 만나기란 더 어렵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했건만 아직껏 사고를 면치 못한 것을 보면 불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 (중략) … 이 물건을 깨치기 전에 만약 죽게 된다면 또 짐승이 될는지, 새가 될는지, 지옥으로 떨어질는지, 어느 때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게 될는지, 불법을 만나도 최상 최고의 길인 이 한 물건 찾는 공부를 하게 될는지 알 수 없으니 참으로 받을 뻔고 통곡할 일입니다.<sup>30)</sup>

예로부터 선사마다 인생무상을 노래함이 각기 다르고, 공부를 향한 신심과 분심을 일으키는 연구가 다채롭다. 원효의 ‘발심수행장’의 글<sup>31)</sup>도 그 한 예라 할 것이다. 혜암에게 있어서 ‘큰 것’은 견성성불 하여 이 불구덩이 같이 무상하고 좋을 것 없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작은 것’은 풀잎 끝 이슬과 같은 부귀이고 만승천자가 누리는 권세이다. 선사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려우니, 이번 생에 잃어버리면 만겁에도 만나기 어렵다.”<sup>32)</sup>라는 야운스님의 말과 같은 옛 선인들의 무수한 말에 더하여, 불법을 만나도 “이 한 물건 찾는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한 것은 혜암이 최초가 아닌가 한다. ‘불법을 만나도 최상최고의 길인 이 한 물건 찾는 공부를 하게 될는지 알 수 없으니 참으로 받을 뻔고 통곡할 일’이라고 화두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 중국의 자명 석상초원(石霜楚圓, 986~1039)선사와 같은 마음<sup>33)</sup>이었을 것이다.

30)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p.172-173.

31) 일타스님, 『일타스님 초발심자경문강의 2 발심수행장』, 효림출판사, 2018, p.231.  
 “時時移移 速經日夜 日日移移 速經月晦 月月移移 忽來年至 年年移移 暫到死門  
 破車不行 老人不修 臥生懈怠 坐起亂識 幾生不修 虛過日夜 幾活空身 一生不修 身  
 必有終 後身何乎 莫速急乎 莫速急乎”

32) 일타스님, 『일타스님 초발심자경문강의 3 자경문』, 효림출판사, 2017, p.227, “人生難得 佛法難逢 此生失却 萬劫難遇”

선사에게 있어서 붓다는 ‘용맹정진으로 성불하여 고훘에 빠진 중생을 제도한 분’이며 ‘자기 마음을 깨친 두타납자’다. 이 좋지 않은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할 일은 붓다와 같이 자기 마음을 깨쳐 고훘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며, 또 자기 마음을 깨치는 수행은 당연히 참선이고, 그 가운데도 간화선인 것이다. 설사 출가한 지 백 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참선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법랍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며, “참선을 해야 중이지<sup>34)</sup>”라고 할 정도로 선사의 참선에 관한 신념은 확고하다. 참선을 하는 여러 수행법 중 인도와 중국을 통해 선법을 이어온 많은 조사들의 각기 다른 수행법은 선사의 관념에는 그 효력이 없다. 단지 선사는 자신이 수행한 화두참구를 통한 견성성불 외에는 달리 권유할 수행이 없는 것이다. 물론 “책보고 문자를 헤아리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빨리 화두공부를 해야 한다.”<sup>35)</sup>는 이런 수행기조는 당시 선방을 두고 있는 대중처소에서는 거의 주류적 수행의 흐름이었다. 이제 선사의 참선에 관한 관점을 들어보자.

참선이란 인간 본래면목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깨달음의 길이요, 인간 혁명의 길입니다. 불교는 인간에게 최상의 혁명입니다. 본래의 길에서 탈선된 채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안 죽는 길, 살길로 혁명해서 찾아가는 길이 바로 불법이고 참선입니다.<sup>36)</sup>

인간이 자신의 본래면목으로 되돌아가는 깨달음의 길이면서 인간혁명의 길이 바로 참선이며, 인간에게 죽지 않는 길로 가는 최상의 혁명이 바로 불교라는 것이다. 선사는 또 말한다.

불법은 대무심을 배우는 공부입니다. 번뇌 망상을 다 버리고 대무심을 배우는 공부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보면, 그렇게 법문이 많아도 ‘마음 깨쳐서 중생제도해라’ 그 말밖에 없어요. 다른 말은 다 소용없는 말이며, 지말이고 근본이 아닙니다.<sup>37)</sup>

33) 『禪林寶訓』 권4, T48, p.1035a, “惟慈明志在於道 曉夕不怠 夜坐欲睡引錘自刺 嘆曰 古人爲生死事大不食不寢 我何人哉”

34)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121.

35) 해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 해암』, 도서출판 김영사, 2018, p.101.

36)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225.

37) 해암문도회 편, 『해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56.

선사의 불교관이며, 참선관이다. 불교의 근본은 마음을 깨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며,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번뇌와 망상을 다 버리고 대무심(大無心)의 경지를 얻는 것이라는 의미다. 선사는 위의 말을 더욱더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선밖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참선이 없었더라면, 불교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 (중략) ... 팔만대장경 전체를 줄여놓으면, 생사일대사 해결하라는 한마디밖에는 안 남습니다. 나고 죽는 문제를 참선을 통해 해결하라는 한마디밖에는 안 남습니다. ... (중략) ... 내가 내 눈을 못 보는데 거울을 보면 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거울이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를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sup>38)</sup>

위의 세 가지 인용문을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는 인간에게 최상의 혁명이다. 이러한 인간 혁명의 길이면서 인간의 본래면목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깨달음의 길인 참선을 통해 대무심을 배우는 공부다. 이러한 참선을 제외하고 불교는 따로 없으며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참선에도 나를 바로 보는 거울인 화두를 드는 방법이 최고의 수행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서 선사는 참선의 종교를 뛰어넘는 보편성과 중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교에는 성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법, 주력, 독경하는 등등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참선입니다. 참선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이나 신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나 목사나 이교도나 무종교인까지도 참선을 해서 자신의 주인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sup>39)</sup>

위의 인용문에서 선사는 성불하는 방법에 관법과 주력, 독경 등 많은 방법이 있다고 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참선임을 밝히고 있다. 또 이러한 참선은 재가와 출가, 심지어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

38) 해인사 원당암 CD (7), 문광, 『해암성관선사의 자성삼학의 선수행관 고찰- 용맹 정진과 두타고행을 중심으로-』, 해암선사문화진흥회 위음, 『해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p.149.

39) 해암문도회 편, 『해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125.

조차 관계없이 참선을 통해 자기주인공을 깨닫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선하여 자기주인공을 깨닫는 일은 불교 내에 한정된 수행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서 혜암이 말하는 ‘참선’에 관한 글자풀이를 살펴보자.

참선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참’이란 합함이니, 자성에 합하여 청정심을 보양하고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음이다. 오직 일체중생이 다 함께 신심을 바르게 하여 무상대도를 깨달아서 다시는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속히 불과를 증득하기 바라는 바이다.<sup>40)</sup>

혜암이 보는 참선이란 합하는 것이며 그 합하는 대상은 자성청정심이다. 자기의 성품에 명합(冥合)하여 자성이 가진 청정한 마음을 보양하고 쓸데없이 밖을 향해 따로 구하지 않음이다. 여기에 그의 시각始覺적 관념이 피력되고 있다. 혜암은 일체중생이 모두 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위없는 대도를 깨달아 다시 잘못된 길에 떨어지지 않고, 빨리 불과를 증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선사는 참선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참선은 자성공양입니다. 자성공양 하는 사람의 공덕을 입으로 칭찬하는 것은 백천 제불이라도 감히 꿈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칭찬할 수 없습니다.”<sup>41)</sup>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방세계에 죽어가는 사람을 한몫에 살려줘도 공덕이 안 됩니다. 그런 죽어가는 송장들 살려주는 공덕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뵈고?’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참선하는 값이 비쌉니다. 복 없는 사람은 참선을 못합니다. 재미도 없고 공부해봐야 안 되는 것 같지만 비쌉니다. 아무리 천하에 없는 좋은 일을 다 하더라도 부처는 못됩니다. 그러니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가지고 이런 법을 만났는가?”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sup>42)</sup>

40) 신규탁 집주, 『공부하다 죽어라』, 시화음, 2019, p.107.

41)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228.

42)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228.

선사 혜암은 참선이 바로 자성에 공양하는 것이라 하고 참선하는 사람, 즉 자성공양 하는 사람의 공덕은 백 천의 제불이라도 능히 또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한량없는 공덕이며, 죽어가는 송장을 살려주는 공덕이 눈 깜짝하는 동안 ‘이뵈고’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신념이 선사로 하여금 일생을 참선 하는 선사로 살게 한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혜암이 보는 선이란 무엇인가? 선사가 말하는 선은 다음과 같다.

선은 밖으로 육문을 닫아걸고 안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고독한 행군이고 치열한 전쟁입니다.<sup>43)</sup>

선의 본질을 해석한 간명한 말로 육조혜능(638~713)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밖으로 상을 여윈 것을 선이라 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이라 한다.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내면의 마음이 곧 어지럽다.”<sup>44)</sup> 곧 밖으로 일체의 상에 집착을 끊는 것이 선이고, 이로 인해 안으로는 마음의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정이란 의미다. 선사가 육문을 닫아걸고 자기와 싸운다는 의미는 밖으로 일체의 상을 여윈다는 의미이다. 또 선사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계에 나타난 저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하기 전에 저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은 극락세계와 팔만장경과 역대조사와 부처님까지도 때려 부수는 파격적인 독재입니다. 선은 공안의 의심으로 시작하여 의심을 타파하여 견성으로 마무리되어 해탈되는 방법이며 그 자체입니다. 선은 일체중생이 모두 해탈하기 전에는 필수적인 과제이며 마음의 참모습을 보는 무구無垢한 거울입니다.<sup>45)</sup>

위의 두 인용문에서 보이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고독한 행군, 치열한 전쟁’, ‘극락세계와 팔만장경과 역대조사와 부처님까지도 때려 부수는 파격적인 독재’라는 표현은 혜암의 독자적이고 신선한 자기언어다. 선사의 해석에 따르면, 눈의 경계에 그 어떤 물체가 들어오기 전 그것을 보고 느끼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43)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69.

44) 『六祖大師法寶壇經』, T48, p.353b, “外離相爲禪 內不亂爲定 外若著相 內心卽亂”

45)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145.

참구하는 것이 선이며, 그러한 선은 극락세계와 팔만대장경과 역대조사와 부처님까지도 모두다 부수어버리는 파격적인 독재라는 해석이다. 팔만대장경과 역대조사와 부처님까지도 다 부수어버리는 일<sup>46)</sup>이란 표현은 우리가 선대(先代)의 조사들이 남긴 어록들을 통해 흔히 보아온 내용이다. 그러나 ‘극락세계를 부순다’는 표현은 만약 평소 선사가 의도적으로 드러낸 말이라면, 이는 선과 정토를 하나로 보되, 선을 중심으로 하여 선과 정토를 하나로 보는 선정일치(禪淨一致)의 관점을 표출한 것<sup>47)</sup>이라고 할 것이다. 또 이 공부가 눈에 보이는 바깥 대상과의 싸움이 아닌 오로지 안·이·비·설·신·의의 여섯 가지 육근의 문을 닫아걸고 자기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고독한 행군이며, 생사에 자유롭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일이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선사는 또 말한다.

“선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오. 믿음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선이요. 수행이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거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빠기를 하시오. 참선은 빠기지요. 불교의 지혜는 빠기예요. 자꾸 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빠기는 걸가지를 자르는 것이기도 해요. 살인검 활인검이듯 자르고 죽이는 것이 불교의 지혜지요.”

“믿음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선이라면 교는 무엇입니까?”

“교는 닦고 난 뒤에 받는 것이지요.”<sup>48)</sup>

위의 인용문을 앞의 두 가지 인용문과 엮어보면, 참선이란 본래의 자성에 합

46) 『萬松老人評唱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 권5, T48, p.270a, “師云 臨濟宗風 金剛王寶劍 殺佛殺祖”와 같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가풍을 나타내는 표현은 선종의 전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모두가 ‘자기 부처’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활발한 기상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47) 논자는 “혜암선사가 오로지 유심정토만을 주장할 뿐, 서방정토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다(적어도 범어집을 보는 한)”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논자가 예로 든 계승(『범어집 I』, p.197)만으로는 유심정토관을 피력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오히려 선을 중심으로 한 선정일치의 관점을 나타낸 측면이 강한 것이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정영식, 「혜암성관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에서의 위상」,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엮음,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18, p.247.

48) 정관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p.112.

하여 청정한 본래마음을 보양하고,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싸우는 고독하고 치열한 전쟁이다. 또한 믿음에서 바로 들어가 빠기를 하는 작업, 즉 겉가지를 제거하는 일이다. 여기에 교는 닦고 난 뒤에 받는 것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설통(說通)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자기와의 고독하고 치열한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바로 화두라는 것이 혜암의 견해다. 선사의 말을 들어보자.

전쟁은 맨 손으로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화두입니다. 화두에는 1천칠백여 화두가 있는데, 각자 하나씩만 들고 싸우면 됩니다. … (중략) … 육적이 확대되면 팔만사천 마군이 되니 화두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와 몸과 마음이 일여가 되어서 일념만년이 가도록 뚫고 나가야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sup>49)</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선사가 지닌 세 가지의 견해를 엿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깨달음을 얻고자 시작하는 이 전쟁에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두라는 것이다. 또 그 무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통상 1700공안이라고 하는 『전등록』에 나오는 많은 화두는 그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이 둘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많은 공안을 우리가 다 들고 참구할 필요는 없으며, 그 가운데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싸우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화두를 논하는 다음 편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위에서 잠깐 혜암의 선과 교에 관한 인식을 살폈으나 이제 혜암의 선과 교를 바라보는 인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으로 결코 선과 교는 둘이 아니야. 다만 실천하기 위한 이론이 교일 뿐이지. 사실 마강법약(魔強法弱)한 말세에는 교가 살아야 선도 살 수 있는 것이야. 말세라서 글을 배워야해. 왜냐하면 주위에 이끌어줄 선 지식이 없기 때문이야. 바로 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글을 배우는 것이지. 그래서 나 역시 상좌가 강원에 가는 걸 주장하고 있지.<sup>50)</sup>

위의 인용문은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선가귀감』 앞부분에 나타난

49)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p.70-72.

50)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09.

선교관<sup>51)</sup>과 같다. 선승들의 선과 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관련 논문에서 언제나 그 특성의 하나로 논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그 표현과 글자가 조금씩 다를 뿐<sup>52)</sup> 실제로 선과 교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는 견해는 없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가장 분명한 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의 마음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마음을 설한다. 어찌 같지 않겠는가?”<sup>5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우리의 경우로 보면, 조선 초기 억불정책으로 몇 차례에 걸친 불교종파의 혁파가 단행되면서 교종과 선종이 양립하고, 그로 인해 각파의 우위를 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사교입선(捨敎入禪)’의 본질은 교와 선의 우위를 다투는 개념이 아니라, 문자적 이해보다는 실제적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실천을 통한 구경각의 체득이 불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혜암은 ‘공부하다 죽으라’는 그 공부가 화두참구를 통한 구경각의 성취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지만, 위의 인용문은 교학을 공부하는 것에도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위의 인용문에서 말했듯이, 교학을 공부해야하는 이유는 첫째, 마군이 강하고 법이 미약한 말세라는 것이며, 둘째, 말세이기 때문에 주위에 공부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선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세에는 교가 살아야 선이 산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이유로 자신의 제자도 글을 배우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혜암의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글이 하나 더 있다.

거 종단적이나 주요생계로 보아서 선교양종이 필요하기에 捨敎入禪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교리를 연수한 연후에 입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되, 종단적 차원으로 보아서 理事班으로 나누어서 각자 분야에 일여 정진해야 한다.<sup>54)</sup>

51) 『禪家龜鑑』, X63, p.737c, “世尊三處傳心者爲禪旨 一代所說者爲敎門 故曰禪是佛心 敎是佛語”

52) 『禪源諸詮集都序』 권1, T48, 諸佛心口必不相違”; 『梵網經菩薩戒略疏』 권1, p.400b, “謂諸宗始祖卽是釋迦 經是佛語 禪是佛意 X38, p.695a, “故經是佛語 律是佛行 禪是佛心”.

53) 『唯識開蒙問答』 권1, X55, p.341a, “問 禪是佛心 敎是佛語 焉得同也 答 佛心傳佛語 佛語說佛心 焉得不同”

54)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30.

언제나 참선이 제일의 정진이며 간화선의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견성성불을 위한 최상의 지름길임을 강조했지만, 중단적 여건이나 주요생계로 볼 때, 선과 교의 두 가지가 다 필요하며 체계적인 교리 연수 후에 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관과 사관의 분야로 나누어 각자의 분야에 정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면, 자기공부와 달리 교계 전체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요생계’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오늘날 ‘사찰의 경영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경문을 익히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뒤 그 깨달음을 언설로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수승한 묘용(妙用)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말하자면, 종통 이후의 설통을 남다르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혜암의 화두를 보는 관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 2. 화두, 참선의 무기

현재 간화선의 화두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논점들이 있다. 첫째, 화두와 공안을 같이 볼 것인가, 다르게 볼 것인가<sup>55)</sup> 둘째, 화두는 『전등록』에 나오는 고칙(古則)인 1700공안에 한정하여 볼 것인가, 아니면 의문이 일어나는 삼라만상 두두 물물 모든 것이 화두라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이다. 셋째, 화두는 하나만 타파하면 전체를 다 깨닫는 것인가? 순차적으로 전부 참구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넷째, 화두에 대한 해석은 가능한가?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관점에서 혜암의 화두에 관한 입장을 살펴나갈 것이다. 제일 먼저 선사가 말하는 화두론을 들어 보자.

화두는 암호이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 집착하여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기에 알 수 없는 의심을 간단없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화두

55)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의 제기는 인경스님 지음, 『쟁점으로 살펴보는 간화선』, 명상상담연구원, 2011, pp.201-209를 참조하기 바란다. 인경스님은 이 책에서 화두와 공안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전거가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논자는 그 구분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자세한 것은 계기가 될 때 밝힐 것이다.

는 암호인데, 암호의 내용은 잠이 깬 들어서도 일어난데에서 깨쳐야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풀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딱 서야 합니다. 이것이 화두를 참구하는 근본자세입니다.<sup>56)</sup>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근본자세는 이렇습니다. 화두는 암호인데 이 암호내용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하면 잠이 깬 들어서도 일어난 데에서 깨쳐야만 풀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못 푼다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딱 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눈을 확실히 뜨면 이것이 견성인 동시에 1천 7백 공안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란 것은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많지만 똥똥 똥치면 마음 ‘심’ 한 글자에 있습니다.<sup>57)</sup>

위의 두 인용문이 겹친 부분도 있지만,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화두는 암호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또한 이 암호가 가진 내용은 잠이 완전히 들어서도, 즉 숙면 가운데서도 여일한 가운데 깨쳐야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흔히 교학을 가리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한다. 달을 직접 보는 일은 깨달음을 얻는 일이며, 그 경로를 가리키는 것이 교학이라고 한다. 여기서 혜암은 화두의 기능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 풀어야 할 암호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암호는 화두에 관한 의심이 깊고 여일하여 숙면 중에서도 간단없는 가운데 깨쳐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결코 풀 수 없다는 생각이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자에게 근본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 마음의 눈을 확실히 뜨면, 그것이 견성이며 천칠백 공안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인용문을 통해서 화두에 관한 선사 혜암의 두 가지 견해를 알 수 있다. 혜암은 앞에서 전제한 화두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의 첫 번째, 즉 화두와 공안을 같이 보는 입장이란 것이 그 하나다. 선사가 쓰는 말에서 화두와 공안은 특별히 구분되어 쓰이고 있지 않았다. 둘째, 앞에서 세 번째로 제기한 문제인 화두는 하나만 깨달으면 견성이며, 전체 화두를 다 깨닫는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대혜종교가 “천 가지 의심, 만 가지 의심이 단지 하나의 의심이니, 화두에 관한 의심을 타파하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타파된

56)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p.23-24.

57)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p.41-42.

다.”<sup>58)</sup>고 하고, 또 간화선의 삼요三要로 널리 알려진 송말원초의 선승 고봉원묘가 “천 가지 의심 만 가지 의심이 다만 한 가지 의심이니, 이 의심을 해결한 사람은 다시 남은(다른) 의심이 없다. 이미 남은 의심이 없으니, 곧 석가와 미륵과 유마거사와 방거사와 더불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며, 둘도 없고 차별도 없어서, 동일한 눈으로 보고 동일한 귀로 들으며 똑같이 수용하고 똑같이 출몰하며 천당과 지옥에 마음대로 소요한다.”<sup>59)</sup>라고 한 말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것은 일본의 일각에서 주장된 복수의 화두참구와<sup>60)</sup> 종달 이회익선생의 글을 통해 표출된 화두를 하나씩 타파해가는 사다리 선, 흔히 제자선(梯子禪)이라고 하는 선을 천명하는 견해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인 것이다. 화두의 타파는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면 모든 화두를 타파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일 뿐,<sup>61)</sup> 모든 화두를 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으로 가는 무기는 화두이고, 그 화두에는 천칠백여 화두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만 들고 싸우면 된다고 한 혜암의 말이 성립하는 것이다. 선사는 이어서 공안과 일반적 교리와와의 차이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법신에 관한 이론과 법신 자체는 다르며, 마음이 부처라는 도리와 마음이 부처임을 깨닫는 체험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공안과 일반적인 교리와와의 차이입니다.<sup>62)</sup>

이론과 자체, 도리와 체험과의 차이가 일반적 교리와 공안의 차이라고 밝히고

58) 『大慧普覺禪師語錄』 권28, 「答呂舍人(居仁)」, T47, p.930a, “千疑萬疑 只是一疑 話頭上疑破 則千疑萬疑一時破”

59) 『高峰原妙禪師禪要』, 「示信翁居士(洪上舍)」, X70, p.707a “千疑萬疑 只是一疑 決此疑者 更無餘疑 既無餘疑 卽與釋迦彌勒淨名龐老 不增不減 無二無別 同一眼見 同一耳聞 同一受用 同一出沒 天堂地獄 任意逍遙”

60)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밀참록』으로 볼 때, 무로마치선의 커다란 특징은 복수의 공안을 통과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무로마치선은 복수의 공안을 순서대로 참구하는 것이었다.”(디디에 다방, 『무로마치시대의 간화선』, 『종학연구』 제1집,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2019, pp.101-106)

61) 『高峰原妙禪師語錄』 권1, X70, p.678c, “驀然觸發 日前仰山老和尚問拖死屍句子 直得虛空粉碎 大地平沈 物我俱忘 如鏡照鏡 百丈野狐 狗子佛性 青州布衫 女子出定話 從頭密舉 驗之 無不了了 般若妙用 信不誣矣”

62)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법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167.

있다. 이제 화두참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화두의 생명은 의정을 타파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뿔고는 이뿔고 하기 전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이 무엇인고’ 할 일이 생긴다. 비유를 들자면 이 뿔고는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나 마찬가지로 원칙은 달 보는 데 뜻이 있으니 조작으로라도 이뿔고를 해서 공부를 하면 이뿔고가 참 의심몽치 하나로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터진 것을 견성이라 한다. 이뿔고 화두는 세상일과 같이 알아맞히는 공부가 아니고, 알 수도 없고 답답한 데로 파고 들어가니 답답해서 터지는(打破)공부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견성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다.<sup>63)</sup>

간화선에 있어 의정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간화선의 삼요(三要)는 솔의 세 발처럼 신심과 분심, 의심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받쳐주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그 가운데도 간화선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들자면, 당연히 대의정(大疑情)이다. “큰 의심 아래 큰 깨달음이 있다.”<sup>64)</sup>는 원칙은 많은 어록에 실린 보편적 문구인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조작으로라도 이뿔고를 해서 공부를 하면 이뿔고가 참 의심몽치 하나로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터진 것을 견성이라 한다.”라는 부분이다. 남녀노소, 재가와 출가를 비롯해 어떤 근기에게도 문호가 활짝 열린 간화선이지만, 그 쉬운 접근을 막는 것은 1700공안 중 어떤 것을 채택해야 수행자 당인에게 큰 의정을 돈발(頓發)하는가 하는 것이다. 똑같은 ‘무자화두’라도 어떤 이에게는 최고의 활구(活句)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선자(禪者)에게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 수행 도중 화두를 바꾸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봉원묘의 경우<sup>65)</sup>임을 이미 다른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고봉은 ‘구자무불성화’에서 ‘만법귀일화두’로, 마지막 깨달음은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拖死屍句子)?’라는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sup>66)</sup>고 한다. 이처럼 화두에 관한 의심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대

63)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 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31.

64) 『雪巖祖欽禪師語錄』 권2, X70, p.606b, “參禪須是起疑情 大疑大悟 小疑小悟 不疑不悟 須是疑公案始得”

65) 황금연, 「대혜와 고봉이 표방하는 간화선」, 『한국불교학』 제79집,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2016, p.240.

66) 『高峰原妙禪師語錄』 권1, X70, p.678c, “山僧昔年在雙徑 歸堂未及一月 忽於睡中疑

개의 수행자는 화두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공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혜암은 “조작으로라도 이뿏고를 해서 공부를 하면 이뿏고가 참 의심몽치 하나로 된다.”고 권고한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의심을 일으키면, 그 의심이 하나로 된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 앞에서 화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네 번째의 문제인 화두에 대한 해석은 가능한가?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혜암의 견해를 들어보자.

화두의 생명이란 설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 설명될 수도 없고, 설명하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눈을 떠서 실제로 보게 해줄 따름입니다. 또 일본학자로 세계적 권위자인 중촌원(中村元)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불교어대사전(佛敎語大辭典)』과 『동양인사유방법(東洋人思惟方法)』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 책에 선종의 ‘마삼근麻三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처님이나’고 물었는데, ‘마삼근이니라.’했다. 어째서 마삼근이라고 대답했느냐하면 자연현상은 모든 것이 절대이어서 부처님도 절대이기에 부처님을 물었는데, 마삼근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단안을 해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이렇게 온 불교를 망치려고 하니 말세 불법이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는 영원히 망해버리고 맙니다.<sup>67)</sup>

위의 글은 나까무라 하지메 선생을 향한 단호한 비판이다. 생각건대 자기와의 고독하고 치열한 전쟁을 위한 무기로 탐구하는 화두가 위와 같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 ‘언어도단(言語道斷)과 심행처멸(心行處滅)<sup>68)</sup>이란 표현으로 불교의 궁극의 경지를 묘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화두를 들 때에 도무지 허다한 기량을 쓰지 말 것이니, 다만 행주좌와 하는 곳에 (화두가) 끊어짐이 없게 하고, 희로애

---

著萬法歸一一歸何處 自此疑情頓發 廢寢忘餐 東西不辨 晝夜不分 開單展鉢 屙屎放尿 至於一動一靜 一語一默 總只是箇一歸何處 更無絲毫異念 亦要起絲毫異念了不可得 正如釘釘膠粘 撼搖不動 雖在稠人廣衆中 如無一人相似 從朝至暮 從暮至朝 澄澄湛湛 卓卓巍巍 純清絕點 一念萬年 境寂人忘 如癡如兀 不覺至第六日 隨衆在三塔諷經次 擡頭忽覩五祖演和尚眞讚 驀然觸發 日前仰山老和尚問拖死屍句子 直得虛空粉碎 大地平沈 物我俱忘 如鏡照鏡 百丈野狐 狗子佛性 青州布衫 女子出定話 從頭密舉 驗之 無不了了 般若妙用 信不誣矣”

67)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126.

68) 『大般涅槃經疏』 권3, T38, p.57b, “畢竟悉是大般涅槃言語道斷心行處滅不可思議”

락을 느끼는 곳에 분별을 내지 말며, (화두만을) 들어오고 들어가며 보아오고 보아가서 이치의 길(이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재미도 없어서 가슴이 뜨겁고 갑갑함을 느낄 때가 문득 그 사람의 몸과 목숨을 놓는 곳이다.”<sup>69)</sup>라고 한 대혜종교의 간절한 당부도 없었을 것이다. 지견(知見)으로 헤아릴 수 있는 문제를 참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화두와 관련한 ‘무자화두심중병통’<sup>70)</sup>과 같은 것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화두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견해를 분명히 표출하고, 그것이 불법 전체를 망치려한다는 비평을 명시한 것은 선사(선사)가 최초가 아닐까 한다. 화두의 기능과 관련한 선사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보자.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따라 다니지 말고 뜻을 얻어야 합니다. 화두에 있어서는 모든 법문이 다 이렇습니다. ‘정전백수자’, ‘삼서근’, ‘조주무자’이니 하는 것은 손에 든 부채입니다. 부채는 눈에 드러난 것일 뿐, 부채를 본 사람은 신선(선선)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sup>71)</sup>

위의 인용문으로 다시 한번 선사의 화두관을 정리하였다. 이치로 해석할 수도, 의리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손에 든 부채로 신선(선선) 자체를 보는 일이 간화선의 화두공부인 것이다. 선사는 화두 참구가 잘되지 않을 때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화두의 의심이 끊이지 아니하면 이것을 참의심이라 이름 하니, 만약 의심을 한 번 잠깐하고 또 의심함이 없으면 진심으로 의심을 발한 것이 아니라 주작(주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혼침과 잡념이 다 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앉음에 단정함을 요합니다. 첫째는 수마가 오거든 마땅히 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깨닫거든 문득 정신을 차려 화두를 한두 번 소리 내어 들어서 수마가 물러가거든 그대로 앉아있어야 합니다. 만일 물러나지 않거

69) 『大慧普覺禪師語錄』 권28, T47, p.933c, “舉話時都不用作許多伎倆 但行住坐臥處勿令間斷 喜怒哀樂處莫生分別 學來學去 看來看去 覺得沒理路沒滋味心頭熱悶時 便是當人放身命處也”

70) 『禪家龜鑑』, X63, p.739a, “話頭有十種病 曰意根下卜度 曰揚眉瞬目處搽根 曰語路上作活計 曰文字中引證 曰舉起處承當 曰颺在無事匣裏 曰作有無會 曰作真無會 曰作道理會 曰將迷待悟也 離此十種病者 但舉話時略抖擻精神 只疑是箇甚麼”

71) 해암문도회 편, 『해암대중사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128.

든 문득 땅에 내려 수습 보를 포행 하여 눈이 청명해지거든 또 자리에 가서 천만 화두를 조고(照顧)하여 한결같이 채찍 하여 의심을 일으켜서 오래오래 하면 공부가 순속하여 바야흐로 능히 힘을 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써서 화두를 들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화두가 현전할 때에 이르면 경계와 몸과 마음이 다 이전 같지 아니하며 꿈속에도 또한 화두가 들리리니, 이와 같은 때에 큰 깨달음이 가까워집니다.<sup>72)</sup>

이는 혼침과 산란이 일어날 때의 대처법이다. 화두를 참구할 때 보편적으로 취하는 선자들의 해법이다. 혼침과 수마가 올 때, 화두를 소리 내어 한두 번 제기해 보는 것, 그리고도 아직 정신이 또렷하지 않으면 잠깐동안 경행(포행)을 하여 수마를 물리치는 것 등<sup>73)</sup>에 관한 지침이다. 선사는 이밖에도 마음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 것, 참선의 묘함은 성성한 데 있으므로 공안을 점검하되 바른 의심이 있으면 급하지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게 화두를 들어 밀밀히 의단을 돌이켜 관조하면 곧 쉽게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마음 썸이 급하면 육단심이 동하여 혈기가 고르지 못한 것 등의 병이 생기니, 바른 길이 아니라 하였다. 또 동중과 정중에 화두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부딪치지도 아니하며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고 자연 현전하면 이때가 공부의 힘을 얻는 때라고 한다. 홀연히 땀 돌과 땀돌이 맞듯이 마음 길이 한 번 끊어지면 문득 깨달음이 있으리니 깨달음 뒤의 일은 깨닫고 나서 물어야 한다고 한다.<sup>74)</sup> 깨닫고 난 뒤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도리를 깨달으면 눈을 뜨고 감음에 모두 닳치는 곳마다 불법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릴 불공을 드리고 가사를 짓고 탑을 쌓고 개금·개분하는 것만이 불법이었습니까? 깨달은 자의 행동은 일마다 불사요, 미한 자의 행동은 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sup>75)</sup>

위의 인용문은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불법 아님이 없어 그의 행은 모두가 불사지만, 미혹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다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혈맥론』에 말

72)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p.17-18.

73) 『禪關策進』, 『蒙山異禪師示衆』, T48, p.1099b, “第一次睡魔來時 就座抖擻精神 輕敵退 第二次亦如是退 第三次睡魔重時 下地禮拜消遣 再上蒲團”

74)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p.18-19.

75)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범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19.

하기를,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곧 선지식이라 이를 수 없으니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비록 십이부경을 설하더라도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삼계에서 고통을 받고 벗어날 기약이 없다.”<sup>76)</sup>라고 하고, 또 “만약 성품을 보지 못하면 십이부경의 가르침을 설하더라도 다 이것은 마군의 말이며, 마군 집안의 권속이며, 부처님 집안의 제자가 아니다. … (중략) … 문습니다. ‘만약 견성하지 않고 염불하고 경전을 외며 보시, 지계, 정진하여 널리 복과 이익을 일으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성불할 수 없다.’”<sup>77)</sup>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이 혜암의 화두와 관련한 견해를 다 살펴보았다. 앞에서 제기한 화두와 관련한 논점의 둘째, 화두는 『전등록』에 나오는 고칙(古則)인 1700공안에 한정하여 볼 것인가의 문제는 선사가 1700공안 외에 따로 언급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 『전등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선사 자신이 효봉선사로부터 받은 ‘무자화두’ 외에 제자들에게 배운 여러 가지 화두<sup>78)</sup>를 살펴볼 때, 내 몸 난 것 자체, 일 자체, 공적한 우주의 모습이 화두여서 따로 화두를 들 것이 없다고 하는 대혜선사의 견해<sup>79)</sup>와는 완전히 다른 전통적 화두관에 입각해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관한 선사의 견해를 살피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3. 돈오돈수

선사 혜암이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혜종고를 비롯한 간화선의 종장들이 대체로 동일하게 주장해온 것이다. 이 말의 시원(始原)은 육조혜능의 『단경(壇經)』 「돈점(頓漸) 제8」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혜능은 여기서 “스스로의 성품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어서

76) 『少室六門』, 「第六門血脈論」, T48, p.373c, “若不見性 卽不名善知識 若不如此 縱說得十二部經 亦不免生死輪迴 三界受苦 無有出期”

77) 『少室六門』, 「第六門血脈論」, T48, p.374a, “若不見性 說得十二部經教 盡是魔說 魔家眷屬 不是佛家弟子 (중략) 問曰 若不見性 念佛誦經 布施持戒精進 廣興福利 得成佛否 答曰 不得”

78) 혜암이 제자들에게 부여한 화두는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만법귀일 일귀하처’ 및 ‘무자화두’ 등이라 한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p.224, p.248.

79) 한마음선원, 『한마음요전』, (재)한마음선원, 2017, pp.605-606.

단박 깨닫고 단번에 닦는 것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을 세우지 않나니 모든 법이 적멸한데 무슨 차제가 있겠는가<sup>80)</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제기한 돈오와 돈수는 구경각을 이룬 것을 말한다. 구경각을 얻었을 때에는 다시 더 닦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다. 혜암의 말을 들어보자.

정통선맥을 전수하는 오종가풍에서도 다른 법을 하나도 설하지 않고 오직 이 돈오돈수법, 그냥 확철대오(廓徹大悟)하는 법, 이것을 부처님으로부터 전수해온 정법이라 하고 다른 것은 모두 외도법이라고 그러거든.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근기가 약하고 복이 적어서 부처님도 무량겁을 닦아 성불하셨는데, 성불은 못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서 더욱 더 퇴굴심을 생기게 하지. 그래서 혼자 삼년, 십년 공부하는 것보다 선지식스님께 법문 한 번 듣는 것이 낫다고 하지. 힘이 훨씬 더 되니까.<sup>81)</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돈오돈수법이 바로 확철대오하는 법이라 하고, 이것이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온 정법이며 다른 것은 모두 외도법이라 하였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팔만사천법문이 문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과 배치된다는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혜암은 간화선이 최고의 수행이고, 가장 빠른 수행이란 확신을 지닌 본분종사다. 이는 간화선자는 아니지만, 오직 본분사만을 제시한다는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과 그 궤를 같이한다.<sup>82)</sup> 무엇보다 눈여겨볼 말은 “중생들은 근기가 약하고 복이 적어서 부처님도 무량겁을 닦아 성불하셨는데, 성불은 못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서 더욱 더 퇴굴심을 생기게 하지.”라는 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가 견성한 뒤 성불한다는 것으로 믿고 있다. 간화선의 화두를 참구하여 돈오하고 돈수한다는 생각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혜암은 선지식의 중요성과 함께 견성이 곧 성불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80) 『六祖大師法寶壇經』, 「頓漸第八」, T48, p.358c, “自性自悟 頓悟頓修 亦無漸次 所以不立一切法 諸法寂滅 有何次第”

81)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중사 법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11.

82) 『大慧普覺禪師書』 권30, 「答鼓山逮長老」, T47, p.942b, “趙州云 若教老僧隨伊根機 接人 自有三乘十二分教 接他了也 老僧這裏只以本分事接人 若接不得 自是學者根性遲鈍 不干老僧事 思之思之”  
『白雲守端禪師廣錄』, X69, p.310b, “上堂云 趙州和尚道 夫爲宗師 須是以本分事接人”

심은 제 8아뢰야식 근본무명이요, 의는 제7말나식 중간무명이요, 식은 제 6의식으로 말단 무명이라고 하는데, 모두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이 망상구름을 벗으려면 참선공부 하는 것이 첩경입니다. 제8아뢰야식 근본무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견성이라고 인증하나, 아직 생멸심의 분별을 끊지 못하였으면 견성의 구경각이 아닙니다.<sup>83)</sup>

6·7·8식의 심의식인 생멸심의 분별을 모두 끊어야 견성의 구경각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개괄적 요지를 다 설명한 것이다. 성철의 설명으로 보충하면, “견성이란 구경각으로서, 제8아뢰야식의 미세망념까지도 떠나며, 또 십지와 등각보살도 넘어서야한다. 견성은 해탈이고 반야삼매이며 무념이고 무심이라고도 하며 성불이다. 이는 제 8아뢰야 무기무념도 아닌 진여무념을 깨친 것이다.”<sup>84)</sup>라고 한다. “혜암스님은 성철스님과 같이 돈오돈수에 관한 관점이 확고하셨다. 제방을 다니면서 직접 실참해 본 결과 돈오돈수라고 하셨다. ‘견성한 사람은 무사도인이다. 무사도인이 돈오돈수이고, 돈오돈수가 반야삼매이고 증오이고 성불이고 구경각이고 말만 다를 뿐이지 이것이 똑같은 자리이다.’라는 것이 두 어른의 결론이었다.”<sup>85)</sup>라고 하였듯이, 혜암은 성철과 같은 생각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에게 비법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공부하면 시절인연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서울 가는데 서울이 안 나올 턱이 있습니까? 글을 읽다 깨칠지 바람 불 때 깨칠지 모릅니다. 신짚이 벗겨지는 것에 놀라 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두 하나만 놓치지 않고 공부하면 됩니다. 비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sup>86)</sup>

위와 같이 혜암은 화두를 통한 깨달음에 대한 명백한 확신<sup>87)</sup>을 가지고 있었

83)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법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84.

84) 백련선서간행회, 『백일법문·하』, 장경각, 1987, pp.242-262.

85)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혜암』, 김영사, 2018, pp.206-207.

86)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열림원, 2019, p.205.

87) 혜암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견성을 표출한 말이 있다. “장좌불와라는 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요. 옛날 조사어록 등에 보니까 이르면 사흘이나 일주일에도 돈오견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에 급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새 50년이나 계속됐어요. 이제는 몸이 안 좋아 누우려 해도 10분만 누워있

다. 혜암은 오늘날 수행자들이 수행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언제나 갈등을 느끼는 수행방법 전반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말을 들어보자.

오늘날 전통 선맥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조선은 사구선, 즉 죽은 공부라 하고, 간화선은 활구선, 즉 산 공부라고 하거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 관법이나 목조선, 염불 등은 화두를 드는 것처럼 힘이 들지 않거든. 그런 방법으로 수행하다보면, 그것들도 선정을 닦는 것이라서 어느 경계에 가면 몸도 마음도 없어진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위로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계합이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수행하기 쉽고 정도 익히지며 경계도 나타나니까 아주 좋거든. 그리고 나는 참선도 못하니까 관법이나 하고 염불이나 해야겠다고 생각들을 하지. ... (중략) ... 이 대목에 신심을 가지고 3일도 좋고 5일만해도 경계가 딱 나타나 버린단 말이야. 기도나 염불, 관법을 몇 십 년 한 것보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화선인데, 이것을 말세라서 중생들이 지혜가 적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sup>88)</sup>

간화선이 가장 수승한 효력이 있으며, 여타의 수행법은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견해가 분명하다. 기도나 염불, 관법을 몇 십년 한 것보다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견해가 확고한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전통 참선은 간화선이며, 목조선은 사구에 해당하고, 염불이나 목조선, 수식관 등은 비교적 하기는 쉽지만, 반면에 정력(定力)이 쌓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sup>89)</sup>는 신념이 매우 확고하다. 그 이유는 의정이 없는 공부는 생명력이 없게 되고 그러한 참선은 정신통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법의 근본목표가 바로 생사해탈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탈에 이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범부중생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팔만사천법문으로 시설되어있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중략) ... 해탈이란 일체 번뇌 망상을 다 여윈 가운데서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

으면 가슴이 답답해 못 견뎌요. 견성했다고 앓은뱅이 잠만 자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군요.”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법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276.

88)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법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p.209-211.

89) 혜암문도회 편, 『혜암대종사 법어집Ⅱ』,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197.

것입니다. 구경각을 성취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해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돈오, 즉, 증오가 되어야 합니다. 해오가 되어서는 해탈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십지보살이 설법을 구름 일듯하고 비 오듯이 잘 하더라도 근본무명을 완전히 끊은 해탈이 아니니,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진정한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돈오하면 해탈한다고 했으므로 돈오의 내용과 해탈의 내용은 똑같아서 돈오가 증오이며 바로 구경각인 것입니다.<sup>90)</sup>

위와 같이 해암은 불법의 근본목적은 생사해탈이고, 그것을 위한 수행방법은 많은 것이 있지만 반드시 구경각을 성취해야 하며, 돈오가 바로 해탈이고 증오이며 구경각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선사의 수행에서 출발하여 불교와 참선 및 화두와 견성을 보는 견해를 추적해왔다. 결론적으로 선사 해암은 한국불교의,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의 전통적이고 가장 모범적 수행자 중 한분이며, 간화선의 참구에 있어서도 전통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가장 모범적 간화선의 중장이라 할 것이다. 해암은 불법의 근본목적은 생사해탈이고, 생사해탈을 위한 많은 수행방법 중에 간화선의 화두참구가 가장 확실한 무기이며, 뛰어나고 수승한 방법임을 누누이 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역설했다. 아마도 선사처럼 간화선의 화두참구가 목조선을 비롯 한 염불, 관법 등 여타의 수행에 비해 가장 큰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업력을 녹이는 뛰어난 수행방법임을 힘주어 역설했던 선사는 드물 것이다. 물론 간화선만이 최고의 수행법이란 관점에 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진 수행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사 자신의 체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며 그가 오로지 본분사만을 제시하고자 했던 선사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사에게 있어 불교는 인간에게 최상의 혁명이며, 참선을 제외하고 불교가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불교관이며 참선관이다. 선사에게 있어서는, 생사해탈을 위해서 반드시 구경각을 성취해야 하며, 구경각을 성취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참선이고, 참선 중 최고의 수행법은 간화선의 화두참구이다. 즉, 화두참구를 통

90) 해암문도회 편, 『해암대종사 범어집 I』, 도서출판 김영사, 2007, p.53.

한 돈오가 증오이며 해탈이고 구경각이라는 철저한 확신 아래 구경각을 성취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는 자기만의 법칙으로 하루 한 끼의 공양과 장좌불와, 거기에 육신의 원활한 운용과 동정일여의 수행을 위해 선택한 일(운력)의 세 가지를 평생의 수행 내내 실천해온 수행의 모범이다.

간화선과 관련하여 선사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화두에 대한 해석금지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선사로서 최초의 입장표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잠깐동안의 불타는 신심과 맹렬한 수행은 출가수행자라면 누구나 경험한다. 혜암의 신심과 수행은 지칠 줄 모르는 확고하고 일관된 실천에 있었다는 것에 선사의 남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자기에게 철저하고 타인에게 자비로운 보기 드문 수행자였으며, 간화선과 관련해서도 간화선의 기본근간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가장 모범적인 사상 아래 모범적 실천을 보여준 종장이다. 또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간화선을 수행의 최상덕목으로 일깨운 것은 선사의 본분종사로서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준 단면이라 할 것이다.

지면관계상, 선사가 그토록 비판한 보조지눌의 돈오점수와의 비교, 돈점과 관련한 자세한 천착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참고문헌

- 『高峰原妙禪師禪要』, X70.  
『高峰原妙禪師語錄』 권1, X70.  
『大般涅槃經疏』 권3, T38.  
『大般涅槃經』 권13, T12.  
『大慧普覺禪師書』 권30, T47.  
『大慧普覺禪師語錄』 권28, T47.  
『大慧普覺禪師語錄』 권25, T47.  
『大慧普覺禪師語錄』 권24, T47.  
『大慧普覺禪師語錄』 권19, T47.  
『萬松老人評唱天童覺和尚頌古從容庵錄』 권5, T48.  
『梵網經菩薩戒略疏』 권1, X38.  
『白雲守端禪師廣錄』, X69.  
『禪家龜鑑』, X63.  
『禪林寶訓』 권4, T48.  
『禪源諸詮集都序』 권1, T48.  
『雪巖祖欽禪師語錄』 권2, X70.  
『少室六門』, 『第六門血脈論』, T48.  
『唯識開蒙問答』 권1, X55.  
『六祖大師法寶壇經』, T48.  
『緇門警訓』 권1, T48.  
『緇門警訓』 권2, T48.
- 백련선서간행회, 『백일법문』 하권, 장경각, 1987.  
신규탁 집주, 『공부하다 죽어라』, 시화음, 2019.  
인 경, 『쟁점으로 살펴보는 간화선』, 명상상담연구원, 2011.  
일 타, 『일타스님 초발심자경문강의 3 자경문』, 효림출판사, 2017.  
\_\_\_\_\_, 『일타스님 초발심자경문강의 2 발심수행장』, 효림출판사, 2018.  
정찬주, 『공부하다 죽어라』, 도서출판 열림원, 2019.  
한마음선원, 『한마음요전』, (재)한마음선원, 2017.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스승 혜암』, 김영사, 2018.

- 해암문도회 편, 『해암대종사법어집 I』, 도서출판 김영사, 2007.
- \_\_\_\_\_, 『해암대종사법어집II』, 도서출판 김영사, 2007.
- 디디에 다방, 「무로마치시대의 간화선」, 『종학연구』 제1집,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 2019.
- 문 광, 「해암성관선사의 자성삼학의 선 수행관 고찰 -용맹정진과 두타고행을 중심으로-」, 해암선사문화진흥회 엮음, 『해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 여 연, 「가야산의 대쪽, 해암성관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해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 정영식, 「해암성관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에서의 위상」, 『해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 조기룡, 해암선사의 수행 리더십 형성과 하화중생」, 해암선사문화진흥회 엮음, 『해암선사의 삶과 사상』, 시화음, 2020.
- 황금연, 「대혜와 고봉이 표방하는 간화선」, 『한국불교학』 제79집, 한국불교학회, 2016.
- \_\_\_\_\_, 「조선시대승가의 수행경향에 관한 연구」, 『종학연구』 제1집, 동국대학교 종학연구소,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Hyeam's Seon Thought

Hwang, Geum-yeon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actice and thought of Hyeam Seonggwon 慧菴性觀(1920-2001), along with his Buddhist ideas of meditation, Hwadu 話頭, and Gyeonsung 見性. According to records, his life is summed up in three ways. First, he was a thoroughgoing person in his life and management. Second, he was a man who practice Seon 禪 thoroughly as a Buddha's disciple. Third, he was the master of Ganhwaseon 看話禪, who devoted his life to enlightenment through practice. The basis of his performance is to maintain the best condition for Cham-Seon 參禪. The practice is three things: eating a meal once a day 一種食, Jangjwa-Bulwa 長坐不臥, and working to keep the body healthy.

In this world as a fire pit, all he has to do is to achieve enlightenment like Buddha and to save humankind. The practice on that is Ganhwaseon referring to Hwadu and it is the core of his Buddhist thought and performance. As for him, Buddhism is the greatest revolution for man, and Seon is the way of enlightenment to return to human nature. In order to return to human nature, a performer must abandon his anguish and delusions and gain Daemushim 大無心, which leads to the enlightenment of Subitism 頓悟頓修 through Hwadu. In Buddhism, there are methods to be Buddha such as meditation, dharani, reading sutra, Mukjoseon 默照禪, but Ganhwaseon is the best way. He insisted that all human beings, including other religions and atheists, should realize their Juingong 主人公 through Chamseon. As for me, Chamseon is an effort to cultivate a clean mind in combination with nature, a solitary march, and a fierce struggle. Hwadu is the weapon for a struggle. It is also to get out of the mind and remove the side branches.

The 1,700 public records in *Transmission of the Lamp* are equal value as Hwadu. Only one of these public records can lead to realization and become Buddha, above all, the vitality of Hwadu is not explained and cannot be explained. He made it clear that if someone explained or heard the topic, everyone would die. He advised a performer to do the following when referring to Hwadu when it is not going well. “If you manipulate ‘What is this?’ and study it, the lump of doubt becomes one, and if you go one step further from it, you’ll attain enlightenment.” He also said, “The Korean traditional chamseon is not Mukjoseon included in Sagu 死句 but Ganhwaseon. Yeombul念佛, Mukjoseon, and susikgwan數息觀 are easy to practice, but it is difficult to build power of samadhi. The Korean authentic Seon explains the method of Subitism, that is, Hwakcheoldaeo廓徹大悟 without preaching other dharma, and other dharmas are not orthodox.”

In other words, Buddhism is the greatest revolution for humans, and there is no Buddhism except for Chamseon. In order to escape from life and death, a performer must achieve ultimate enlightenment究竟覺, and the way to achieve Daemushim of ultimate enlightenment is meditation, and the best performance of meditation is Ganhwaseon that refers to a Hwadu. In other words, sudden Enlightenment頓悟 acquired through referring to a Hwadu is abhisambuddha-bodhi證悟, nirvana, and ultimate enlightenment. Like this, he performed eating a meal once a day, Jangiwa-Bulwa長坐不臥, and working to keep the body moving smoothly as a performance to achieve enlightenment with broad faith. This is the performance of Dongjeong Ilyeo動靜一如. He didn't deviate from the tradition of referring to a Hwadu, and was the master of the most exemplary Ganhwaseon.

Key words

Ganhwaseon, Hwadu, Subitism(돈오돈수), Daemushim(大無心), Dongjeong Ilyeo(動靜一如), ultimate enlightenment(究竟覺), eating a meal once a day(一種食), Jangiwa-Bulwa(長坐不臥).

논문투고일 : '20. 10. 19. 심사완료일 : '20. 11. 18. 게재확정일 : '20. 11. 18.